

가을 햇볕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지막이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 누릴 소박하고도 깊은 행복을 노래합니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가꾼 정직한 노동의 열매를 거두고
거둔 열매로 사랑하는 이들과 한 자리에서 나누는 일,
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눈부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시인은 우리 가정을 향해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풍경을 그려냅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단단히 맺은 포도나무와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푸르고 풋풋한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던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매일 보아 익숙했던 가족의 얼굴을 오늘 새삼스런 눈으로 가만히 바라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따스한 그늘이 되어주고
영혼의 온기를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정을 향해 시온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식구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하십니다.

명절인 오늘, 서로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 위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shalom)가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깊이 깃들기를, 다가올 날들도 주님의 신실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예배순서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시편 103:1~5 다 함께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3.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4.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5.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찬 송 찬송가 589장 다 함께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푸는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 도 맑은 이

가을 햇살이 넉넉히 차오르는 한가위 날,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걸음이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로 삶의 무게에
휘청이고 이슬비 같은 근심에 마음이 젖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가만히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파스한 온기를 통해 다시 걸어가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 풍요의 계절에 받은 복만을 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을 향해 시선을 넓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야기와 밥상 위에 주님의 평화가 깊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올 날들도 주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히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1~6 다 함께

1.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2.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4.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5.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6.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말 씀 파스한 식탁의 축복 다 함께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